



## 전주비전대 LINC+사업 1분 스피치 경진대회 성료

전주비전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최승훈)은 1일 2021년 LINC+사업 1분 스피치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LINC+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전 면접 대응 능력과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스피치 전문 강사의 특강을 통한 첨삭 지도를 받았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스피치 전략을 배웠다.

이 대회에서 '자기소개'를 주제로 1분 동안 발표를 진행, 1차 예선 및 2차 본선 평가를 거쳐 우수자를 선발했다.

대상 수상자로는 건설 디자이너 양성반 이정현 학생(지적 토목학과)이 선정됐다.

문용규 총장사무대행은 "이번 대회를 통해 면접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성공을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5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전주시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총 30개 팀 참여, 덕진동 A팀 · 송천2동 A팀 남녀 부문 우승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지회장 전영배)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송천동 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제29회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년 만에 열리게 된 이번 대회에는 전영배 지회장과 김영구 명예 회장 조희정 노인대학장, 지회 임원 및 35개 동 분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남자 19팀, 여자 11팀 등 총 30개 팀이 출전해 자웅을 겨뤘다.

대회 우승에는 남자 부문에 덕진동 A팀이, 여자 부문에 송천2동 A팀이 차지했다. 남자 부문 팔복동 A팀과 여자 부문 송천동 B팀이 준우승을 거뒀다. 3위는 남자



부문에 호성동팀과 금암1동 B팀, 여자 부문에 효자5동팀과 덕진동팀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전영배 지회장은 "게이트볼은 여러 어르신들이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동료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운동으로 건강하고 보람찬 노

후생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을 축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때, 제29회 전주시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선수와 임원 어르신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한국전통문화전당, '맛있는 김치학교' 성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이 김장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손맛이 담긴 김치를 만들어보는 '지역농산물로 만드는 맛있는 김치학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전주시 지원을 받아 11월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김장문화의 가치를 고찰하고 김치 조리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김영옥 강사(전주음식 명가)의 배추김치 강의를 비롯해 5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우리 고유의 김장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열띤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김윤상 기자



# 남원시 기부천사 김숙희 회장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남원시는 1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남원자구협의회 김숙희 회장이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숙희 회장의 기탁은 남원시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추진하는 「희망2022 나눔캠페인」의 남원시 1호 기탁으로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김 회장은 남원 지역 최초로 「아너소사이어티」(1억 이상 고액기부자)에 가입하고, 현재 법무부 법사랑 위원 남원자구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청소년지원을 위해 캠페인과 상담 등을 진행하며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 회장은 "매년 기부에 동참하면서도 새로운 마음기쁨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나눔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환주 시장은 "올해도 잊지 않고 기부에 동참해주는 김숙희 회장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부터 시작된 「희망2022 나눔캠페인」은

2022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남원시청(063-620-6209)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나눔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환주 시장은 "올해도 잊지 않고 기부에 동참해주는 김숙희 회장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부터 시작된 「희망2022 나눔캠페인」은

2022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남원시청(063-620-6209)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교육지원청 · 수곡장학회, 남원교육 대상 수상

남원교육지원청과(교육장 박연주) 재수곡장학회(이사장 양혜석)가 2021년도 남원교육대상 수상자로 유·초등부에 오동초 박남권 교사와 중등부 인월중 김종구 교사를 선정 시상했다.

박남권 교사는 투철한 교직관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남원지역 초등학교에서 22여년을 재직하면서 연구학교 정착과 확대에 노력하고 관련 유공공무원 표창과 스승의 날 우수교사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수업개선 선도학급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김종구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담당자로 "스스로 계획하는 여행" "학부모와 함께하는 요리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많은 기여 하였으며, 교권보호 담당자로서 교권학습에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교실수업 개선에도

노력해 민주적 역량을 키우는 학급운영에 기여했다. 남원교육지원청과 재수곡장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남원 교육에 혼신해온 교육자를 발굴해 남원교육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해외연수상금(상금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노력해 민주적 역량을 키우는 학급운영에 기여했다.

남원교육지원청과 재수곡장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남원 교육에 혼신해온 교육자를 발굴해 남원교육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해외연수상금(상금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비전대,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 설치 운영

전주비전대학교 진로설비상담센터와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는 비전관에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 '키오스크'를 설치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 두려움 등으로 고통 받는 전주비전대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번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간편한 사용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 수시로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진단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작이 쉽고, QR코드를 이용해 개인 후대전화로 자가 검진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 또 검진 결과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추가적인 심층 상담, 정신건강 지원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장은성 기자

# 남원시 인월면, 새마을지도자회 김장 나눔

남원시 인월면(면장 이은주) 남녀 새마을지도자회(면회장 민병만 신현숙)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따뜻한 겨울나기 실천을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40박스를 관내 흘로사리는 어르신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지도자회원과 인월면 여성인들이 함께 참여해 배추 170포기를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갔으며,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을 필요로 일체 재료는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이 아낌없는 기부로 진행되었다.

민병만 회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행복한 인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은주 면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헌훈한 온정을 담은 사랑의 김장김치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 로터리클럽(회장 박지원)은 청소년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전주중앙여고 교장실에서 인터랙터로 활동하고 있는 모범학생 5명에게 30만원씩 총 150만원을 전달했다.

박지원 회장은 코로나로 로터리와 인터랙터와의 유대감 형성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시국이 호전되면 좀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스폰서 클럽으로써 인터랙터들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터랙트는 로터리클럽의 후원을 받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래들과 사귀고 국제적인 시각도 넓히기 원하는 12~18세 청소년들을 위한 클럽을 말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중앙여고 인터랙트 장학금 수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 로터리클럽(회장 박지원)은 청소년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전주중앙여고 교장실에서 인터랙터로 활동하고 있는 모범학생 5명에게 30만원씩 총 150만원을 전달했다.

박지원 회장은 코로나로 로터리와 인터랙터와의 유대감 형성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시국이 호전되면 좀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스폰서 클럽으로써 인터랙터들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터랙트는 로터리클럽의 후원을 받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래들과 사귀고 국제적인 시각도 넓히기 원하는 12~18세 청소년들을 위한 클럽을 말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노송동 통장협의회, 겨울이불 기탁

전주시 노송동 통장협의회(회장 장미선)는 1일 노송동(동장 심규언) 주민센터에 소외계층을 위한 겨울이불 10채를 기탁했다.

이번 겨울이불은 겨울철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미선 통장회장은 "바쁜 일정과 함께 학생들에게 겨울철에 따뜻한 힘을 주고자 기탁했다"고 밝혔다. 심규언 노송동장은 "겨울철에는 추위에 노출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을 주고자 기탁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